

'1폰 2넘버 시대' 전용 요금제 나온다

비대면·온라인서 'e심' 간편 개통
유심 통신사와 다른 곳 가입 가능
KT '듀얼번호' 요금제 내달 출시
월 8800원에 '데이터 1GB' 제공

9월부터 스마트폰 1대에서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e심'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유심과 e심을 함께 사용하는 '듀얼심' 기능을 이용하면, 목적에 맞춰 2개의 전화번호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일상과 업무의 분리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전화번호 노출도 줄일 수 있다.

● 새 '갤럭시Z' 시리즈 지원

'심'(SIM)은 가입자의 정보를 담은 모듈이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에 물리적 유심을 삽입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e심은 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이다. 이용자들은 '프로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비대면·온라인 개통이 편리하다. 가격도 2750원으로 유심(7700~8800원)보다 저렴하다.

e심과 유심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심을 활용하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다. 일상과 업무로 용도를 분리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갈 때도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심이 바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원 단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애플 아이폰은 2018년 출시된 'XS' 모델부터 이용할 수 있고, 삼성전자 제품의 경우 최근 선보인 '갤럭시Z'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듀얼심을 9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듀얼심 요금제 '듀얼번호'를 출시하는 KT의 '듀얼번호 버 사진제공 | KT

폴드4'와 '갤럭시Z플립4'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 KT '듀얼번호' 요금제 출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번호 2개를 쓰는 것은 기존에도 가능했다. 이동통신 3사는 월 3000원대의 부가서비스 '투넘버'를 제공해 왔다. 가상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새 스마트폰을 개통한 것처럼 회선이 완전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약이 따랐다. 가상번호로 연락을 하기 위해선 특정 문자를 선입력해야 하고, 본인인증도 불가능하다.

반면 듀얼심은 가상번호가 아닌 또 하

나의 번호를 개통하는 방식이어서 이런 제약이 없다. 무엇보다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로 가입할 수도 있다. 기존의 유심은 이동통신사로, e심은 알뜰폰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는 듀얼심 고객을 위한 요금제도 선보인다. KT는 '듀얼번호' 요금제를 9월 1일 출시하기로 했다. 월 8800원에 두 번째 번호용 데이터 1GB를 제공한다. 데이터가 소진되면 최대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메인 번호의 음성과 문자를 두 번째 번호로 공유할 수도 있다. 메인 번호로 음성, 문자,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제공

되는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두 번째 번호에 '듀얼번호'를 가입하면, 메인 번호의 음성과 문자를 두 번째 번호에서도 무제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KT는 듀얼번호를 많은 고객들이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약정 없는 요금제로 준비했다. 또 듀얼번호를 알리기 위해 '듀얼번호 버스' 인증샷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구강본 KT 커스토머사업본부장(상무)은 "듀얼번호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지속 증가되는 가운데, 고객 편의성과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추석을 앞두고 9월 6일까지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G마켓과 옵션의 '한가위 빅세일'. 사진제공 | G마켓

"추석 대목 잡아라" e커머스 앞다퉈 할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서비스들이 추석을 맞아 할인 기획전을 벌인다.

G마켓과 옵션은 9월 6일까지 '한가위 빅세일'을 연다. 식품과 생필품, 패션뷰티, 디지털가전, 리빙레저 등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한 '브랜드판'을 개설해 각 카테고리별 전용 상품을 선보인다. 또 '특가판'을 통해 테마 상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쿠팡은 '2022 추석 프로모션'을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선물세트부터 음식, 여행 패키지까지 관련 상품을 모아 선보인다. 쿠팡이 추천하는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단하루 특가'도 마련했다.

11번가는 추석 선물 베스트셀러 상품을 매일 특가로 선보이는 '한가위 대잔치'를 9월 5일까지 실시한다. 고객들이 추석 시즌 가장 많이 구매했던 상품군 중에서도 11번가 상품 기획자(MD)가 직접 명절 선물로 추천하는 제품들을 엄선해 할인 판매한다. 11번가 단독 기획 선물 세트도 마련했다.

위메프는 9월 12일까지 '2022 추석' 기획전을 열고 제수용품·효도 가전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오늘의 추천 상품과 품목별 선물 추천, 가격대별 상품 추천, 추석 준비 코너로 나눠 주 2회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 티몬도 9월 10일까지 '추석맞이' 특별 기획전을 벌인다.

삼성전자,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기 공개

삼성전자는 9월 2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전시회 'IFA 2022'에서 글로벌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해양 보호 비영리 연구기관 오션 와이즈와 협력한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기를 공개한다. 삼성전자와 파타고니아는 세탁 시 의류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최대 54% 저감하는 세탁 코스를 공동 개발했다. 이 코스는 오션 와이즈의 테스트를 거쳤다.

삼성전자의 에코 버블 기술은 세제를 녹여 만든 풀부한 거품이 세탁물에 빠르게 스며들어 오염을 끊임없이 제거해주는 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옷감의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 코스를 적용한 '비스포크 AI' 세탁기를 10월 중 유럽 시장에 출시하고 추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헤이홈 IoT 제품도 제어…'LG 씽큐' 사용자 경험 확대



전동 커튼 등 연동 제품 대거 추가
애플 홈킷·아카라 등과도 손잡아

LG전자가 'LG 씽큐' 앱의 사용자 경험을 확대한다.

LG전자는 국내 사물인터넷(IoT) 브랜드 '헤이홈'의 기기를 LG 씽큐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동 커튼부터 스마트 전구, 스마트 플러그, 온습도 센서, 모션 센서, 도어 센서, 스마트 버튼, 스마트 허브 등 8가지 IoT 제품을 LG 씽큐 앱에서 제어할 수 있는 연동 제품에 추가했다. L

G 씽큐 앱에서 헤이홈의 전동 커튼을 열거나 닫을 수 있고, 스마트 전구를 켜고 끄거나 불빛 색상을 바꿀 수도 있다. 또 헤이홈의 온습도 센서와 LG 휴센 애어컨을 연동하면 설정한 온도에 맞춰 애어컨이 알아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설정한 습도에 따라 제습기를 작동시키거나 애어컨을 제습 모드로 동작해 집안 습도도 조절한다.

LG전자는 스마트홈 구축을 위해 LG 씽큐 앱과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을 확대해 왔다. 헤이홈에 앞서 애플 홈킷, 아카라 등과도 손을 잡았다. LG 씽큐 앱을 통해 애플 홈킷에 연동된 스마트 조

명과 온도조절장치 등 5종과 아카라의 스마트 스위치, 온습도 센서, 조도 센서 등 8종의 IoT 기기도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는 LG 씽큐와 연동되는 IoT 기기를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헤이홈, 아카라 등의 IoT 기기를 LG 베스트샵과 LG 씽큐 앱의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다.

염장선 LG전자 H&A사업본부 H&A 플랫폼사업담당 상무는 "연동할 수 있는 IoT 기기를 꾸준히 늘리고, 고객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LG 씽큐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오늘의 날씨

29일(월)		
서울 60/60	인천 60/60	춘천 40/40
21 25	21 24	19 24
강릉 30/30	대전 30/30	전주 30/30
19 26	19 26	20 25
광주 30/30	대구 30/30	부산 30/30
20 27	19 27	21 28
창원 30/30	제주 20/20	지역 강수 확률 날씨 최저 최고기온°C
19 27	24 30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9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부장 인도영 소포조부부장 정재우 엣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도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